

## 보도자료



담당부서 :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	평가담당관	김진만	2133-6890
	평가총괄팀장	강옥현	2133-6892
	담당자	박민호	2133-6895
	관련홈페이지 (메뉴)	<a href="http://www.seoul.go.kr">http://www.seoul.go.kr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3쪽

### 서울시 혁신 컨설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-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'맥킨지앤컴퍼니-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' 선정
  - 지자체 최초 민간컨설팅 기관이 시 본청 및 산하기관 컨설팅
  - 3~12월까지 채무, 민간위탁사업, 조직체계 등 시 전반 문제 진단, 개선방안 제시
- 서울시는 시 주요분야 컨설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, 맥킨지앤컴퍼니-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(이하 맥킨지 컨소시엄)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민간전문 경영컨설팅 기관의 컨설팅을 받는다. 컨설팅 용역은 올 12월말까지 추진되는데 시 본청·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.
- 이번 컨설팅은 조직, 업무프로세스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혁신 프로젝트이다.

○ 이를 위해 지난 2.5~2.25 입찰공고를 실시한 결과, 3개 업체가 신청하였고, 2.28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맥킨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.

맥킨지 컨소시엄은 컨설턴트와 공인회계사 등 13명 이상의 전문가를 서울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상주시켜 SH공사 경영혁신 등 7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는 내용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.

○ 우선, 맥킨지앤컴퍼니는 88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경영 컨설팅업체로서 전 세계 56개국 104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으면서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하다. 한편, 삼일회계법인 역시 43년의 역사를 가진 유수의 국내 업체로 2,500여명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재무관리 개선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특징을 갖고 있다.

○ 맥킨지 컨소시엄은 총 42주간 시본청, SH공사, 지하철 양 공사, 서울연구원, 시설공단 등을 대상으로 3개의 컨설팅팀이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. 컨설팅에는 북미, 유럽, 중동 등에서 도시, 재무감축, 교통 등 유관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자문역할 수행도 포함되어 있다.

○ 또한, 컨소시엄측은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은 사후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실행방안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.

서울시는 이번 컨설팅 용역을 통해 시정 현안 우선 순위를 정해 시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SH공사, 서울메트로 등 시 산하기관의 채무감축

및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확보할 계획이다.

- 서울시 관계자는 “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경영혁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시 우수인력을 투입하여 혁신방안이 실제 업무 영역에 현실성 있게 반영되고 지속가능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